



천안시, 대한민국소통어워즈 2관왕 및 올해의 SNS 유튜브 최우수상

천안시가 각종 SNS 소통 분야에서 상을 받아 시민과 온라인으로 활발하게 소통하는 으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천안시는 '제13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올해의 소통대상 (Leading Star)과 대한민국공감콘텐츠대상 이벤트콘텐츠 부문 대상을 받았다. 또 '제6회 2020 올해의 SNS'에서 유튜브 분야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한 제13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고객이 검증한 인터넷소통지수(ICSI)와 소셜소통지수(SCSI), 콘텐츠경쟁력지수(CQI)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천안시는 ICSI·SCSI·CQI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100대 공공 고객만족도 종합지수인 78.21점보다 월등히 높은 87.12점을 받았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 활동과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현 상황에 걸맞은 소셜라이브와 정보 콘텐츠 등을 신속하고 적절히 제공해 소통지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의 SNS'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후원한다. 기업과 공공기관·소상공인·중소기업·개인의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대상과 올해의 SNS유튜브 최우수상을 받은 미디어홍보팀 직원들

SNS 매체별 활용 현황을 평가해 널리 알리고 올바른 SNS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5년 제정됐다.

시는 천안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제작과 도구 연계성 및 활동성이 우수하고 코로나19 외에도 다양한 주제를 다룬 콘텐츠를 제공해 전반적으로 SNS가 대중의 관심을 잘 끌어낸다는 호평을 받아 유튜브 분야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명열 홍보담당관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대면 소통이 어려운 위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소통을 강화할 기회로 여기고 공식 SNS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을 더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홍보담당관 미디어홍보팀은 2020년 한해 SNS 운영 관련 시상식에서 총 6회 수상한 바 있다. ♡



박상돈 천안시장